

건축경기 쾅쾅... 광주만 봄날?

1월 건축허가 면적 전국 반토막, 광주는 120% 증가 알고보니 광산구 우산동 아파트 단지 1건 승인 때문

지난 1월 광주지역 건축허가 면적이 크게 늘었다. 주택 경기 침체와 미분양 주택 물량이 늘어나면서 전국의 건축 허가 면적이 20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한 민간주택 건설사가 광산구 우산동에 대형 아파트 단지 건축허가를 받은 데 따른 '이변'이다.

9일 국토해양부가 내놓은 '2009년 1월 건축허가 현황'에 따르면 전국에서 건축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연면적은 448만9천835㎡로 집계돼 전년

동월에 견줘 48.4%나 줄었다. 특히 주거용 건축물의 허가 면적은 90만 440㎡에 불과해 지난해 1월부터 63.2% 감소했고 지난 1989년 1월(89만 9천㎡) 이후 20년만의 최저 수준이다.

허가뿐만 아니라 실제 착공 실적도 극도로 부진, 건축물 착공 실적은 364만3천㎡로 작년 1월부터 38.9% 떨어졌다. 주거용(76만8천㎡)만 놓고 보면 50.4%나 감소한 것으로 통계를 작성한 2000년 이후 최

저다.

반면 광주의 건축물 허가 면적은 작년 1월(8만5천659㎡)보다 124.5% 급증한 19만2천313㎡로 집계됐다. 포럼 건축개발이 광산구 우산동에 연면적 13만1천881㎡의 공동주택 사업승인 허가를 받은 것이 원인이 됐다.

이를 제외하면 건축 허가 면적은 6만 432㎡에 불과해 전년보다 29.4%가 감소했고 지난 1999년(2만311㎡) 이후 최저 수준이다. 용도별로는 주거용이 11만2천678㎡, 상업용 1만5천562㎡, 공업용은 6천753㎡로 나타났다.

전남의 건축 허가면적도 지난 2001년(10만1천301㎡) 이후 최저 수준인 18만1천932㎡에 그치면서 지난해 같

은 기간(27만4천56㎡)에 비해 33.6%가 급감했다. 용도별로는 주거용(2만4천850㎡), 상업용(3만9천236㎡), 공업용(2만7천556㎡) 등으로 집계됐다.

건축허가 면적은 건축·토목 등 건설부문 중 민간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투자 선행지표로, 주택수급동향의 진단 자료이자 건축자재 수급·생산 예측을 위한 기초 자료이다.

일각에서는 아파트가 일반적으로 건축 허가를 받고 실제 입주까지 2년 정도 걸린다는 점에서 앞으로 2년 뒤 경기가 회복되면 주택 공급 부진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꽃보다 도자기'

다가오는 봄을 맞이해 9일 서울 청계8가 한국도자기 사옥 전시장에서 '꽃보다 도자기'전이 열려 고객들의 시선을 끌고 있다. 이번 전시회는 시계, 액자, 화병 등 다양한 도자기 소품을 이용해 봄맞이 집안 새 단장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

연합뉴스

양도세 1,600억 내달까지 환급

광주·전남 1,600명 70억

국세청이 소득세, 부가가치세에 이어 1천600억 원 규모의 양도소득세를 조기 환급한다.

국세청은 9일 생활공감 세정의 일환으로 통상 8월 말까지 지급하는 양도소득세 환급금을 4월 말까지 앞당겨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환급은 지난해 12월 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작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통상 납세자는 5월 확정 신고를 통해 8월 말까지 이미 신고 납부한 양도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그러나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 경정 청구나 별도 신고 없이 4월 말까지 대상자에게 양도세를 환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개정 세법에 따른 환급분이 8천500명, 1천530억 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광주·전남은 모두 1천600명이 70여억원의 양도소득세를 환급받는다. 구체적으로 8년간 직접 지은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면서 1천800명, 900억원 규모의 환급 요인이 생겼다. 비사업용 토지(정부 수용분)에 대한 종과 제의 요건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면서 2천 400명이 590억 원을 돌려받게 됐다.

정부가 수용한 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소득 계산방식을 양도 당시 기준 시가에서 보상금 수령 시의 기준시가로 변경해 적용하는 것과 관련한 환급 대상은 4천300명이다. 다만 환급 세액은 유동적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光銀, 100명 규모 '인턴십 프로그램'

광주은행이 9일부터 광주·전남지역 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 100여명을 대상으로 '광은 인턴십 프로그램'에 들어갔다. <사진> 일자리 나누기 차원에서 실시하는 이번 프로그램에는 인턴사원 87명과 직장 체험자 13명이 참여

했으며 졸업생은 2개월, 재학생은 4개월 과정으로 진행된다. 참여자들에게는 월 100만원 정도의 급여가 제공되며 광주은행은 평가 우수자에 대해 직원 채용시 우대할 방침이다. /정필수기자 bung@kwangju.co.kr

광주·전남 주공 임대주택 만족도 '최하위'

대구·경북지역 가장 높아

주택공사의 국민임대 및 매입 임대주택에 대한 광주·전남지역 임주민들의 만족도가 타 지역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희수(경북 영천) 의원은 9일 대

한주택공사에서 제출받은 '2008 임대주택 입주자 주거만족도 조사'를 분석한 결과, "광주·전남지역의 매입 임대주택 임주민들의 만족도는 5점 만점의 3.00점으로 전국 최하위권"이라고 밝혔다.

매입 임대주택은 주택공사가 기존 다가구주택을 매입, 재임대하는 것으

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다.

대구·경북지역이 4.30점으로 가장 높았고, 대전·충남(4.10), 인천(4.08), 부산(4.00) 등의 순으로 높았고, 광주·전남을 비롯, 강원과 울산·경남의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전세 임대주택에 대한 만족도도 3.60에 불과, 대구·경북(2.97), 부산(2.70) 다음으로 낮았고 국민 임대주택도 3.77점으로 전국 평균(3.92)에 못 미쳤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1월 광주·전남 땅값 하락

전월대비 각각 0.23%씩 내려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지난 1월 광주·전남 지역 땅값이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지공사 광주전남본부는 "지난 1월 광주전남지역 지가 동향을 분석한 결과, 전월 대비 광주가 0.23%, 전남이 0.23% 각각 하락한 것으로 조

사됐다"고 9일 밝혔다.

시도별로는 경기도(-1.02%) 서울(-0.91%), 인천(-0.92%) 등 수도권 지역의 하락률이 컸고 광주·전남 지역을 비롯, 경남(-0.17%), 강원(-0.18%) 등은 하락률이 낮았다.

구체적으로는 광주와 대구의 경우 대구

가 -0.36%로 하락률이 가장 높았고 서구(-0.34%), 광산구(-0.25%), 동구(-0.17%), 북구(-0.08%) 등의 순이었다.

전남은 영암군이 -0.43%로 하락폭이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나주시(0.41%), 곡성군(-0.32%), 담양군(-0.31%) 등의 순이었다. 한국토지공사 광주전남본부측은 "글로벌 경기 침체 여파로 토지 거래도 부진을 면치 못해 전국적으로 하락세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난청이 사라지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국제보청기 본점: 광주 남문동 1062-227-9940 총장점: 광주 동문동 1062-227-9970

novita

신뢰할 수 있는 10년 세월의 풍부한 경험과 관록의 비데전문기업!

신뢰할 수 있는 10년 세월의 풍부한 경험과 관록의 비데전문기업!

비데프라자 | 전화: 062-515-1144

(주)제주무궁화관광

제주도 여행 패키지 89,000원

제주도 여행 패키지 89,000원

제주도 여행 패키지 89,000원